

유교에 정면으로 맞선 中 사상계 이단아



이탁오평전
연리예삼·주지연구오 지음
홍승직 번역
들베개 펴냄 | 2판2천원

‘나이 오십 이전의 나는 한 마리 개에 불과했다. 앞에 있는 개가 자기 그림자를 보고 있으면 같이 따라서 쫓았던 것이다. 만약 누군가 내가 쫓는 까닭을 묻는다면 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쑥스럽게 웃을 수밖에...’

‘나이 오십 이전의 나는 한 마리 개에 불과했다. 앞에 있는 개가 자기 그림자를 보고 있으면 같이 따라서 쫓았던 것이다. 만약 누군가 내가 쫓는 까닭을 묻는다면 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쑥스럽게 웃을 수밖에...’

얼핏 들으면 섬뜩한 느낌이 든다. 유교이외에는 다른 학문은 철저히 배척했던 명·청 교회의 사상계를 거침없이 비판한 말이다. 철저한 자기 반성에서 나온 이 촌철살인의 주인공은 유교의 전제에 맞선 중국 사상사의 최대 이단아 이탁오(李卓吾, 본명 이지 1527~1602)다. 그의 사상과 철학, 일대기가 최근에 한권의 책으로 묶여졌다. 제목은 <이탁오 평전>.

사상적인 스펙트럼이 다양했던 중국. 하지만 이탁오가 살던 시대의 중국은 양명학의 창시자인 왕양명조차 공자는커녕 주희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을 하지 못했다. 이점을 감안하면 국가에서 인정받은 유일한 학문체계였던 유교의 전횡에 반격을 가한 이탁오의 사상사적 위치는 자명하게 드러난다.

가정 6년(1527) 푸젠(福建) 취안저우(泉州)부 진강(晉江)현에서 태어난 이탁오의 이름은 지(贇)다. 탁오는 그의 호이다. 이탁오의 사상은 당시 중

공자 팔아 백성들의 눈과 귀 막아버리고

사상의 자유 박탈한 유교사회에 일침

국과 같은 유교국가에서 부처와 노자보다 훨씬 파괴력을 지닌 이단이었다. 송나라 이후 주희의 주석으로 고정된 유교경전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학문체계였다. 공자를 비판하거나 경전의 진리성을 부정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일이었다. 그렇다고 이탁오가 공자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고대의 한 사상가이자 교육자요 학자로서 공자를 존경했다. 하지만 그를 신성불가침의 이상으로 떠받들면서 중생의 눈과 귀를 다른 사상으로부터 막는 것은 가증스러운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탁오 평본 서유기》에 나오는 삽도(挿圖).

이탁오로서는 목숨을 버릴지언정 이런 행태를 받아들이 수 없었다. 이탁오가 공격한 공자는 춘추시대의 공자가 아니라 ‘백가’를 배척하고 오로지 유가의 학설만 존중하는 후대의 공자였으며,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음에도 주희의 것만을 신봉하는 주희의 유교였다.

이탁오는 ‘분서’ ‘장서(藏書)’ ‘설서(說書)’ 등 수많은 저작들을 통해 자신의 이 같은 사상을 설파했다. 그는 책을 집필할 때 이미 예견했다. 책이 세상에 선보여질 때 자신에게 미치지 될까가 단지 지금처럼



명·청 교회의 중국 사상계를 거침없이 비판한 이탁오의 초상화.

럼 비난 하는 강도에 끝마쳐질 것이 아니라는 걸. 그러했기에 책 이름도 불태워버려야 할 책(분서), 감추어야 할 책(장서)이라고 스스로 불었다.

이탁오의 사상은 이 책에 소개된 ‘동심설’ (童心說)에서 한층 틀이 오른다. 그는 인간이 사회화되기 이전의 동심을 ‘진성진정’ (眞性眞情)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도리와 견문, 그리고 사회로부터 무언의 암시가 인간의 마음속으로 들어오면서 동심이 오염되고, 결국 소멸해버린다는 것이다. 따라서 독서란 본래 동심을 지켜서 잃지 않게 하려는 것인데, 오히려 대의를 흠치고 성현을 사칭하는 도구로 전락했음을 꼬집는다.

특히 송대 이후 독서란 곧 주희를 통한 공자 읽기가 모두였으며, 이는 과거를 통해 입신양명하려는 과정과 다를바가 없다는 것이다. 이탁오의 동심설은 이같은 전제적 유교, 그리고 이를 신봉하며 부와 명예를 낚는 관리와 학자들에게 대한 뼈아픈 충고이다.

이탁오가 말년에 불교에 귀의해서인지 책 필미에는 ‘생사조탈’ 이라든가 ‘인연’ 등 불교적 용어들도 간혹 등장한다.

이 책은 관료로서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오직 사상적 자유를 추구하며 겪는 외롭고 고통스러운 여정도 함께 묘사한다. 사상적 독립투사들의 삶이 대부분 외로웠듯이 그도 결코 예외의 모습은 아니었다. 그로부터 수백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엄연한 사상적·문화적 전제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시대를 초월해 고개를 끄덕이며 읽을 수 있는 책이다.

김주필 기자 jkim@buddhapia.com

● 이탁오는 누구

이탁오는 26세 때 관리 등용문인 ‘거인’에 합격해 하남·남경·북경 등지에서 하급관료 생활을 하다가 54세 되던 해 운남의 요안 지부를 끝으로 관직에서 물러났다. 40세 되던 해 왕양명의 학문을 접하고 심학(心學)에 몰두했으며, 62세에 삭발하고 이단임을 자처하며 불교에 심취했다.

그는 유·불·도의 종지(終止)가 같다고 보았으며, 유가의 전제에 반대했다. 76세 되던 해 흑세무인의 죄목으로 투옥돼 옥중에서 자살했다.

저서로는 ‘분서’ 6권, ‘속분서’ (續焚書) 5권, ‘장서’ (藏書) 68권, ‘속장서’ 27권 ‘설서’ (說書) 등이 있다. 그의 저서들은 명·청 시대의 가장 유명한 글서였지만, 대부분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참스키,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
드리로베르 글 | 강주현 옮김
시대의 창 펴냄 | 9800원

‘미국의 양심’ 노암 촘스키(영어학자)와 프랑스의 두 언론인이 두 시간에 걸쳐 나는 대화의 내용을 정리한 책이다. 거대한 지배 권력에 맞서 진실을 외치는 촘스키 사상의 고갱이이자, 지금까지 그의 저서에서 독자들이 궁금해했던 부분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일종의 촘스키 사상의 기본이기도 하다.

책은 촘스키가 늘 주장해온, 미국의 세계 지배 음모, 지배권력의 속성, 지식인과 여론조작,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메커니즘 등을 속속들이 파헤치고 있다. 특히 언론과 지식인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지배권력의 편에서 소극적이고 무지하며 프로그래밍된 민중을 만드는 데에 일조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두 시간의 짧은 인터뷰이지만, 대화의 주제는 점점 깊어져 권력의 속성과 실제, 현실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허구성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의 이야기는 책 제목처럼 현재 세계를 누가 무엇으로 움직이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촘스키의 생각이나 사상, 그의 주장 등이 쉽고도 간결하게 고스란히 담겨 있어 촘스키를 알고 싶었던 독자들에게 유용해 보인다.

복지국가 혼드는 신자유주의

그는 특히 ‘권력의 중심에 있는’ 다국적 거대 기업들의 오만과 횡포, 그뿐만 아니라 가려진 처부를 날같이 까발린다. 또 “그렇지만 논리로 포장된 신자유주의가 민주주의를 무차별 공격하며 거대 기업에 힘을 실어주고 복지국가의 기본틀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며 민주주의를 보전하기 위한 시민들의 각성과 실천적 행동을 촉구한다.

이 책에는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의 수호”라는 명분 아래 세계 도처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미국의 패권전략에 대한 비판,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사례인 ‘포리송 사건’에 얽힌 이야기, 사생활 등도 실었다.

촘스키는 “지식인이란 진실을 말하는 자”여야 하지만, 역사적으로 지식인들은 대개 지배권력의 이해를 대변·선전하는 데 복무해왔다고 말한다. 요컨대 ‘조작된 동의’의 배달부 노릇을 해왔다는 것이다.

촘스키가 프랑스에서 ‘천대’ 받게 된 경위는 이렇다. 1970년대 말 로베르 포리송이라는 한 대학교수가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부정하는 글을 발표했다. 그는 그 때문에 교수직에서 해임됐다. 촘스키는 이 사건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탄원서에 서명했다. 이후 프랑스에서 촘스키는 반유대주의자를 옹호한 ‘빌어먹을 촘스키’가 됐고, 그의 책도 거의 소거가 되지 않았다.

틀에 얽매지 않는 거침없는 대화와 두 기자의 리드미컬한 진행, 그리고 삽화를 이용한 경쾌한 편집은 세계적인 석학 촘스키의 사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미 촘스키 저서들을 읽은 독자라면 그리 새로운 내용이 없어 다소 실망할 것이다. 평소 촘스키를 궁금해하면서도 어렵게 생각해 섣불리 손이 가지 않았던 독자라면 이 책으로 가볍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허광무(한림대 영어학과 강사)

의식이 깨어있는 분들에게 드리는 글

(어리석은 분은 읽은들 무슨 뜻인지 모르니 읽지 마세요)

“UFO와 하나님의 실체” <천지창조의 비밀>에 대한 책의 광고를 10여 차례 게재한 취지의 설명입니다.

민족의 정서와 의식이란 그 밀바탕이 그 민족의 오래된 전통적 신앙과 종교적 관습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 봅니다. 민족의 바른 정서와 바른 종교와 바른 의식(意識)의 전환운동이란 그 시대를 잘 간파하여 주어진 여건과 환경을 잘 인지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의식(意識)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잘 알고 대처하는 일입니다. 의식이 깨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울고 함리적인 이론과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 온 바른 사상과 종교를 널리 홍보함으로써 민족의 깨달기 운동이 자연스럽게 전개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한국은 대(多)종교 사회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기독교(천주교)의 독무대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천주교 교황이 서거하자 마치 우리의 國父가 서거한 것보다도 더한 뉴스의 독무대는 민족의 주체적 의식이 망각된

채 시대주의 신앙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깨닫기 운동이란 바로 전 인류가 최종적으로 가야할 지표이며, 이 길은 동양의 대표적인 종교들이 설파한 일입니다. 미물까지도 널리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보살의 마음인데 어찌 사도(使徒)들이라 하여 내팽개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제도하고 바르게 이끌 사람들은 불교인 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이웃에서 해매고 있는 우리의 친척이며 형제들인 기독교천주교인들입니다. 바른 이치를 바르게 알려 주는 것이 수행자의 옳은 행위이며 자비 정신이므로 그들을 가려내고 축은한 마음에서 그들을 바르게 이끌고 더 나아가 우리의 전통과 교관수호의 여러 가지 차원에 있는 것이지 결코 남의 신앙을 비방하거나 헐뜯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바른 법도 널리 알리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

는 것이요, 비록 잘못된 것이라도 항상 쓰고 있으면 타성이 붙어 그것이 전리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깨닫기 운동이란 바른 법을 널리 홍보하고 깨달음의 길을 몸소 체험하고 실천하는데 그 뜻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어찌 성현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천지창조의 비밀>을 널리 홍보하고 읽게끔 하는 그 자체가 포교이며, 많은 노력과 자금을 들이지 않고 종교 간에 갈등과 다툼 없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자연히 교화가 되리라는 생각에서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도는 전 종교인의 과반수(過半數)가 넘고 천주교인도 4백만이 넘는 지금의 시점에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의학 예술 등 각 분야에 있어 지도급 인사를 70%가 기독교인들이라는 통계가 나왔으므로 사회는 그들의 논

리에 좌지우지됨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불교인은 몇%일까요? 10%도 못되는 현실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몇 천원이 아니라 몇 조(兆) 우리나라의 전 예산을 퍼붓는다 해도 기독교의 교세를 역전시키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일부 스님들은 아직도 시대의 흐름을 모르고 신도가 줄어 폐사 위기의 사찰이 많은데 지금도 대형 사찰과 거대한 불상을 조성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절이 크고 불상이 크면 영험한 부처님이 계신가요? 불교계 신문의 광고에 나와 있는 많은 사찰 때에는 무엇을 뜻하나요. 신도가 없으면 한 줌의 재가 된다는 것을 모르니 아무리 큰 절을 짓고 불상을 크게 만든들 무슨 공덕이 있었습니까? <천지창조의 비밀, 김종성 씀>을 日刊紙에 꾸준히 광고하여 많은 사람들을 읽게끔 한다면 불

교인은 자긍심에 개종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무종교인은 기독교(천주교)로 가는 일이 없을 것이며 기독교인들도 비논리적인 성경의 내용을 알게 되므로 스스로 자각의 소리에 귀를 열고 깨달음의 종교에 귀의할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교화하는 방법, 종교전쟁이 없이 교화하는 방법은 메스컴을 통한 교리의 홍보입니다. 이것이 지혜가 아닐까요. 성현의 가르침이 <깨닫기 운동>이라는 것을 알고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범민족 깨닫기 운동모임) 임원 일동
회장 김도기(관음사 주지)

동참하실 분 :
농협 751025-51-021224 (예금주 : 김팔영(宅기))
(054-633-0108, 010-2465-1357)